

— 마음을, 세상을,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2020.6

맑음은 개인의 청정음,
향기로운은 그 청정의 사회적 메아리를 뜻합니다. - 法 頂



©이종승



진흙 속에서도 티 한 점 없이
말고 향기로운 꽃을 피워내는 연꽃은
시민모임「말고 향기롭게」의 정신을 상징합니다.

마음을 말고 향기롭게

욕심을 줄이고 만족하며 삽시다 • 화내지 말고 웃으며 삽시다
• 나 혼자만 생각 말고 더불어 삽시다.

세상을 말고 향기롭게

나누어 주며 삽시다 • 양보하며 삽시다 • 남을 칭찬하며 삽시다.

자연을 말고 향기롭게

우리 것을 아끼고 사랑합니다 • 꽃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가꾸며 삽시다
• 덜 쓰고 덜 버립니다.

2020 / 6

법정 스님 입적 10주기 특별판

차 이야기

다시 읽는 산방한담	04	눈이 번쩍 뜨인 차
일기일회	10	물은 낮은 데로 흘러 세상을 적신다
차 이야기	18	차 이야기
법정 스님의 숨결	32	하회탈 같은 스님
법정 스님이 두고 간 이야기	35	식사와 급유
법정 스님의 애송 선시	37	자고 일어나 차를 마시니
법정 스님의 산중 편지	38	술은 먹지 말아라
법정 마음의 온도	40	새물에 끓여야 차 맛도 좋다
법정 스님 10주기 추모 전시회 안내	42	법정 스님의 향기로운 글 & 금강경 모음전
맑고 향기롭게 활동소식	44	중앙모임 / 지역모임 소식
길상사 소식	50	

(사)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는

우리들 마음과 세상 그리고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가꾸며 살자는 순수시민단체로 본 소식지를 발행합니다.

2020년 6월 1일 발행 / 통권 304호 / 신고번호 성북라00004호 / 1999년 6월 23일 등록

발행인 및 편집인 이광래 / 편집장 홍정근 / 편집위원 주소영

발행처 맑고 향기롭게 모임 : 서울시 성북구 선잠로 5길 68(성북동 323번지) 길상사 내

전화 (02)741-4696 전송 741-4698

인쇄인 · 인쇄처 디자인나경 유경은

대구모임 : (053)753-8883 / 경남모임 : (055)266-0710 / 광주모임 : (062)236-3129

http://www.clean94.or.kr / E-mail : clean94@hanmail.net

길상사는 맑고 향기롭게 모임을 후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정스님에 의해 창건된 사찰입니다.

전화 (02)3672-5945 전송 3672-5947 / http://www.kilsangsa.or.kr / E-mail : kilsangsa@hanmail.net

눈이 번쩍 뜨인 차

글·법 정(法 頂)

오늘은 종일 봄비 소리를 들었다. 창밖에 부슬부슬 내리는 빗소리를 들으면서 앉아 있으니, 산방의 촉촉한 한적(閑寂)이 새삼스레 고맙게 여겨졌다. 이런 때 차를 안 마실 수 없다. 초하룻날 지리산에서 종대 스님이 보내온 차를 오늘 비로소 시음했다.

〈불일회보〉와 출판 일을 보고 있는 현장 법사(나는 그를 이렇게 부르는 것이 습관화되었다.)가 제주도를 다녀오는 길이라며 아침나절에 들렀었다. 인도에서 세계적인 차의 명산지인 다질링과 스리랑카의 차밭이며, 가는 데마다 눈에 띄는 일본의 차밭과 남제주 도순에 있는 차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차를 마셨다.

점심 공양을 마치고 쉬는 시간인데, 큰절에서 강원의 중강(中講)으로 있는 한 스님이 세배하러 올라왔다. 오늘이 초사흘인데 마음에 걸렸던지, 가사 장삼을 싸들고 빗속을 올라온 것이다. 강원의 교과 과정이며 새로 입산한 행자들의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 하면서 차를 마셨다.

오후 네 시쯤 되어 “스님 계십니까?” 하는 소리에 문을 열어보니 아랫마을에서 낙죽(烙竹)으로 기능 보유자의 수업을 하고 있는 김군이 오랜만에 찾아왔다. 얼마 전 필리핀에 다녀온 이야기를 들으면서 함께 또 차를 마셨다. 김군은 자기 집에서는 지금 마시는 이런 차맛이 안 난다고

하며 서너 잔을 연거푸 마셨지만, 나는 찾아온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 그저 마신 척했을 뿐이다. 오늘은 근래에 드물게 이와 같이 네 차례나 차를 마셨다. 뭐니뭐니해도 혼자서 한가롭게 차를 마시고 있을 때, 차의 향기와 맛과 그 빛깔의 싱그러움을 온전히 음미할 수 있다.

가끔 갖게 되는 생각이지만, 이런 산중에 살면서 차가 없다면 얼마나 뻑뻑하고 식막할까를 헤아리게 된다. 마음이 지극히 한적할 때 마시는 차는 말 그대로 감로미(甘露味)가 아닐 수 없다. 지금 마시고 있는 차를 누가 만 들었는지 그 만든 사람에게 고마운 생각이 저절로 든다. 이런 때는 다기(茶器)의 감촉도 새롭다.

그리고 일을 한 가지 끝내고 나서 흥가분한 기분으로 마시는 차도 감미롭다. 기분 전환을 위해서 드는 한두 잔의 차는 사뭇 유쾌하다.

차를 알 만한 사람과 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마시는 차 또한 즐겁다. 차에 대한 책을 읽을 때는 문득 차를 마시고 싶어진다. 아마 술꾼들이 술에 대한 문헌을 펼쳐들 때에도 그러리라 여겨진다.

누가 선물을 보내올 때, 내 경험에 의하면 차나 다기에 대한 선물이 그 중 반갑고 고맙게 여겨진다. 맑고 향기로운 마음이 담긴 물건이기 때문에 그런지 부담스럽지 않아서 좋다.

오늘 같은 경우 세 번째와 네 번째 자리에서 드는 차는 손님을 위한 의례적인 것이므로 내게 있어서 차맛은 별로다. 의례적으로 마시는 차는 그저 덤덤할 뿐, 그리고 차맛을 잘 모르는 사람들과 차를 마시는 일은 차에 대한 결례일 거라고 나는 생각한다.

따라서 그런 사람에게는 그 구미에 알맞은 구수한 현미차 같은 것을 마시게 하는 것이 제격일 것이다.

그가 차맛을 제대로 아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다. 대개의 경우 씹쓸한 맛을, 어떤 사람들의 표현에 따르면 시래기 삶은 물 같은 맛을 보고 나서 한잔 더 마시겠느냐고 물으면 “아니 되었어요.”라든가 “그만 할래요.”라고 온몸으로 거절하는 동작을 짓는다. 만약 이런 사람에게 일급 차를 내놓았을 때, 차가 얼마나 아까운지를 후회하게 될 것이다.

내가 처음 녹차를 본 것은 20대에 갓 입산 출가한行者 시절이었다. 경남 통영군 산양면에 있는 미륵산 미래사(彌來寺)에서였다. 결제일과 해제일에 정례적인 법문이 있었는데, 조실(祖室)인 효봉 선사가 법상에 오르면 원주 스님이 찻잔에 차를 따라 법상 한쪽에 올려놓았었다.

아직도 기억에 생생한 것은, 어느 날 선사께서 법문을 하시다가 찻잔

을 입에 대기가 무섭게 “차가 너무 쓰다.”라고 하면서 찻잔을 그대로 내려놓았던 일이다. 그때의 원주도 차가 무언지도 잘 모르면서 맛도 향기도 없는 해묵은 차를 펄펄 끓는 물에 한주먹 듬뿍 넣어 우렸던 모양이다.

그날 법문 끝에 찻잔을 치우면서 맛을 보았더니 그저 ‘쓰디쓴 물’이었다. 이 쓰디쓴 물이 금생에 내가 처음 맛본 차맛인 셈이다. 그 뒤로는 두 번 다시 그토록 쓰디쓴 물에 입을 대지 않았다.

1960년, 그러니까 4·19혁명이 일어난 해였다. 운허 스님을 모시고 통도사에서 불교사전 카드를 정리하고 있을 때였다. 점심 공양 끝에 이따금 차를 마셨는데, 차 시중은 운허 노스님 방시자인 용문이란 행자가 들었다. 열대여섯쯤 된 마음씨 좋은 아이인데, 지금 남은 기억에도 늘 땀을 뻘뻘 흘리면서 뛰어다녔고, 웃이 땀에

절어 있어 빨래 좀 자주 해 입으라고 잔소리를 해준 일이 떠오른다.

이 아이가 차 시중을 들었는데, 펄펄 끓는 알루미늄 주전자에 차잎을 듬뿍 넣어 가져오곤 했었다. 그때의 우리도 차가 무엇인지, 차를 어떻게 우리는지 잘 몰랐기 때문에 그 쓰디쓴 물을 한컵 가득 훌쩍훌쩍 마셨다. 중국서 건너온 재스민차를 주로 마셨던 것 같다.

차를 제대로 알게 된 것은 1960년대 말 봉은사 다래헌(茶來軒)에서였다. 동국역경원이 개설되는 바람에 그 일을 거들기 위해 거기 머물렀다. 판전(版殿) 아래 있는 별당(別堂)(그전까지 별당으로 불렸었다)에 법안(法眼) 스님과 내가 들어가 살면서 집 이름을 다래헌이라고 새로 지어서 부르게 되었다.

마침 그곳에는 좋은 샘이 있었다. 감로천(甘露泉)이라고 언제 누가 새겨

놓았는지 그 샘의 이맛돌에 음각으로 새겨 있었다. 그 무렵의 다키는 해인사 동구의 토우(土偶) 선생이 만든 것이 몇몇 스님들 사이에 나누어졌고, 차는 지리산 조태연 씨 집에서 나오는 것을 가장 상품으로 쳤다.

그 다래헌 시절에 마셨던 차 중에서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차는, 태백산 도솔암에서 일타 스님이 시자편에 보내온 차였다. 그때 차와 함께 보내온 사연은 대충 이랬다. 전라도에 사는 비구니가 소량의 차를 손수 만들어왔는데, 차맛이 좋아 스님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는 시자편에 조금 보낸다는 내용이었다.

그해 맨 처음으로 따서 만든 차인 듯, 아주 섬세한 세작(細作)이었다. 가장 좋은 차가 갖추고 있는 빛과 향기와 맛을 두루 갖춘 맑고 향기로운 차였다. 어린애 살결에서 나는 배릿한 젓비린내 같은 그런 향취가 밴 차였다. 그 후 차에 관한 여러 문

현에서 이 향취가 바로 ‘다신(茶神)’이고 ‘진향(真香)’임을 확인하면서 그 차가 아주 좋은 차임을 거듭 알게 되었다.

7,8년 전이던가, 부산의 금당(錦堂) 최규용 선생이 조계산에 오면서 가져온 용정차(龍井茶)의 맛을 또한 잊을 수 없다. 중국을 다녀온 친지가 보내온 차라고 하면서 납작한 여행용 차통에 담긴 차를 내놓았었다.

용정차도 그 등급이 여러 가지인데 바로 그해에 만든 상품 차였다. 그들의 표현대로 극품(極品)이었다. 다른 차와는 달리 네댓 번을 우려도 한결같이 산뜻한 맛이었다. 그 후 많은 용정차를 마셔보았지만 그때의 그런 차맛은 아니었다. 일본에서 만든 차는 대개 그 제다(製茶)의 연월을 밝히는 것이 상례인데, 중국 사람들은 제다 연월을 밝히지 않아 헛차인지 묵은 차인지 마셔보기 전에는 도무지 분간할 수 없다.

지난해 늦가을 여수 현정(隱亭)네 집에서 그 집 주인 원경 거사(圓鏡居士)와 함께 마신 차가 근년에 마신 차 중에서는 다신이 뻔 좋은 차였다. 무심코 찻잔을 들다가 그 차향기에 눈이 번쩍 띄었다. 이 차를 어디서 구했느냐고 물었더니 어떤 스님이 가져온 차라고 했다. 열 봉지를 구했는데 차맛이 좋다고들 해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다 나누어주고 바닥에 남은 것이 마지막 것이라고 했다.

오늘 아침 시음한 차가 바로 그 차다. 종대 스님이 이 말을 전해 듣고 자기가 마시려고 남겨둔 차를 두 봉지 보내온 것이다. 그런데 그때 그 맛이 아니었다. 우려낸 찻잎을 살펴보니 그때 마신 그 차인 것은 틀림 없는데, 엽록소가 많이 사라져 다신의 그 귀한 향취가 없었다. 아마 보관상태가 안 좋았던 모양이다. 차의 변질을 막으려면 냉동실에 보관해야 한다.

한잔의 향기로운 차를 대할 때
나는 살아가는 고마움과 잔잔한
기쁨을 함께 누린다. 행복의 조건은
결코 거창한데 있지 않다. 맑고 향기
로운 일상 속에 있음을 한잔의 차를

통해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느낄 수
있다. 19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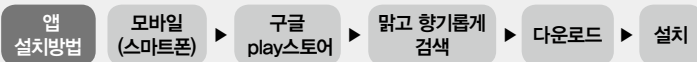
•발행 : 「탕빈 총만」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 후원

'길이 열리는 만큼 물이 흐르듯 본 모임의 사업은 회원님께서 후원해 주시는 만큼 펼쳐집니다. 맑고 향기롭게 모임은 100% 회원님의 후원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사)맑고 향기롭게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활동소식을 비롯하여 법정 스님의 글과 삶의 지혜가 담긴 알차고 유익한 월간 '맑고 향기롭게'를 정기적으로 받아 볼 수 있습니다.

※ 스마트폰 사용자를 위하여 맑고 향기롭게 홈페이지 모바일 버전과 앱(APP)을 구축하여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의 활동소식을 모바일로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 회원 가입은 홈페이지(www.clean94.or.kr)나 사무국으로 방문하셔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 후원해 주신 모든 기부자께서는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위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물은 낮은 데로 흘러 세상을 적신다

글·법 정(法 頂)

가뭄이 오래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 없이는 우리는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은혜를 까맣게 잊고 너무도 당연하게 여깁니다. 요즘 같은 가뭄이 닥쳐야 비로소 물 귀한 줄 깨닫습니다.

우리 몸은 물을 마시지 않으면 하루를 버티기 어렵습니다. 물은 생명에 필요한 절대적인 요소가 아니라, 생명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날이 가문 계절에 물의 음덕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보려고 합니다.

물은 자신의 몸을 더럽히면서 다른 더러운 곳을 씻어 줍니다. 그러면서도 물의 본성은 늘 그대로입니다. 이 세상에 물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

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우리가 먹는 음식뿐 아니라, 세수, 목욕, 빨래, 똥오줌의 뒤치다꺼리도 물이 다 해 줍니다. 옛날 재래식 화장실에선 그런 일이 없었는데, 서양식 양변기를 쓰다 보니까 물이 나오지 않으면 움짱 못합니다. 또 물은 동력을 만들어 기계도 움직입니다. 뿐만 아니라 식물을 통해서 산소를 공급합니다.

산과 들녘에 사람들이 어질러 놓은 산더미 같은 쓰레기를 물이 아니면 누가 치워 줍니까? 폭우가 아니면 치워 줄 사람이 없습니다. 전국의 이름난 산에 가 보십시오. 지리산이고 설악산이고 할 것 없이 쓰레기 천

지입니다. 요즘은 히말라야까지도 등산꾼들이 가서 어질러 놓고, 버려 놓은 쓰레기가 잔뜩 쌓여 있다고 합니다. 인간들이 어질러 놓은 쓰레기를 치우고 생태계의 균형을 위해서 때로는 홍수가 필요합니다.

물은 또한 어떤 형태의 그릇도 마다하거나 가리지 않고 채워 줍니다. 항아리든 접시든, 둥근 그릇이든 네모난 그릇이든, 그 그릇대로 다 채워 줍니다. 말하자면 보살의 마음입니다. 흐르는 물은 웅덩이를 채우지 않으면 앞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자신을 필요로 하는 곳에 헌신합니다.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자신을 다 맡깁니다. 또 물은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그만큼 겸손합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 물보다 부드럽고 겸손한 것은 없다. 그렇지만 딱딱한 것, 사나운 것에 떨어질 때는 물보다 더

센 것은 없다.”

이와 같이 약한 것이 강한 것을 이깁니다. 또 방울물이 모여서 댐을 이룹니다. 댐을 이루어 동력을 만듭니다. 이 오묘한 도리를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모성적인 저력입니다. 어머니들이 약한 것 같지만 얼마나 강합니까? 어머니들은 이 땅과 같습니다. 땅과 대지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잉태합니다.

강물은 항상 흐르고 있습니다. 가뭄에 강바닥이 드러나기도 하지만 정상적인 경우, 강물은 항상 흐르고 있습니다. 언제나 그곳에 있습니다. 한강이든 낙동강이든 금강이든, 흘러 가면서 그곳에 있습니다. 항상 그곳에 있는 같은 물이지만, 순간마다 새로운 물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똑같은 한강이고, 똑같은 낙동강, 금강이지만 늘 새로운 물입니다.

시간도 흐르는 강물과 같습니다. 전에도 우리는 이와 같이 모였었습

니다. 그러나 그때는 지금 어디로 갔는가? 또한 그때 그 사람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의 우리는 그때의 우리가 아닙니다. 새로운 우리들입니다. 걸모습은 저나 여러분이나 비슷하지만 두 달 전의 우리가 아닙니다. 오늘의 우리입니다. 지금의 우리입니다. 강물은 항상 흐르고 있지만 언제나 그곳에 있습니다. 항상 그곳에 있기에 어느 때나 같은 물이지만, 순간마다 새로운 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도 날마다 그날이 그날이고 같은 시간 같지만, 늘 새로운 날입니다. 그것을 자각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날마다 새로운 날이 됩니다. 하루 하루 새롭게 시작해야 합니다.

삶에서 며칠이나 몇 달이 없어도 아무 지장 없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물은 또한 여러 가지로 변화합니

다. 때로는 구름이 되고, 안개가 되어, 뜨거운 햇살을 막아 줍니다. 또 흰 눈이 되어서 얼어붙은 대지를 포근하게 감싸 줍니다. 한겨울에 춥기만 하고 눈이 내리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삭막하고 차갑습니까? 흰 눈은 얼어붙은 대지만이 아니라 사람 마음까지도 감싸 줍니다. 서리가 되어서 계절의 변화를 알려 주고, 비로 목마른 대지를 적혀 주고, 풀과 나무와 곡식들을 보살펴 줍니다. 물보살입니다. 이런 물보살을 함부로 버리거나 대하면 복을 감하게 됩니다.

요즘은 볼 수 없지만, 옛날 오래된 절에 가 보면 부엌으로 들어가는 문 양쪽에 호랑이와 용을 그려 놓았습니다. 그런 그림이 없는 절에선 한자로 ‘호虎’자와 ‘용龍’자를 써 놓았습니다. 이것은 산중에 지천으로 널려 있는 나무라 하더라도 함부로 낭비하면 호랑이가 화를 내고, 또 흘러

가는 물이지만 귀한 줄 모르고 함부로 쓰면 용이 화를 낸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꼭 부역문에 호랑이와 용의 그림이나 글씨를 붙여 놓았습니다. 절도 옛날 좋은 풍습이 다 사라졌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상의 선은 물과 같다^{上善若水}.”

물의 훌륭한 덕은 만물을 이롭게 하는 것입니다. 흐르면서도 다투지 않습니다. 그릇 생긴 대로 다 채워 줍니다. 웅덩이가 있으면 채워 주고, 더러운 곳이 있으면 다 씻어 줍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도 다투지 않고^{水善利萬物而不爭}, 못사람들이 싫어하는 곳에 머문다^{處衆人之所惡}. 그러므로 물은 도에 가깝다^{故幾於道}.”

물은 웅덩이나 시궁창, 모든 곳에

다 머뭍니다. 그래서 물은 도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진리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물보살이라고 합니다.

부처님은 가끔 이런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여러 강물이 바다에 이르면 본래의 이름을 잊어버리고 다만 한 가지 맛이 된다.”

〈화엄경〉에도 같은 비유가 나옵니다. 물은 더러운 곳이 있으면 다 씻어 줍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세속에 있을 때는 저마다 사회적인 지위와 신분, 그 성씨나 이름을 달리했지만, 내 곁에 출가하여 수행자가 되면 모두가 같은 수행자이다.”

그러니까 일불제자^{一佛弟子}, 모두 진리의 형제들입니다. 우리가 어떤 인연으로 이 도량에 모여 있지만, 다 부처님 인연으로 모여든 것입니다. 똑같은 불자입니다. 출가자든 재가자든 일불제자입니다. 한 스승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법의 형제들입니다.

경전에 '팔공덕수(八功德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덟 가지 공덕을 갖추고 있는 물을 뜻합니다. 뛰어난 특성과 효험을 가진 물, 또 극락정토의 연못에 가득한 물입니다. 사전을 찾아 보면 팔공덕수는 달고, 차고, 부드럽고, 가볍고, 맑고, 냄새가 없고, 마실 때 목구멍을 상하게 하지 않고, 마시고 나서도 뒤탈이 없는 물이라고 나옵니다. 무거운 물은 금속성이나 다른 이물질이 섞여서 무거운 것입니다. 자세히 들어보십시오. 팔공덕수라는 것이 대단한 물이 아닙니다. 2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늘 마시던 그 물입니다. 극락세계에 있는 물이 아니라, 우리가 20여 년 전에 마시던 그 물입니다.

지금도 오염되지 않은 산골에 가면 이런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을 누가 망쳐 놓았습니까? 경험해 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해외에서 오랫동안 머물 때 가장 아쉬운 것이 물입니다. 우리가 늘 마시던 우리 산골의 그 다디단 물, 온몸과 영혼이 그 물을 원합니다.

타지방에 가면 우리는 흔히 물이 맞네, 안 맞네 하는 말을 합니다. 그 지역의 기후 풍토만이 아니라 물이 맞지 않으면 그곳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차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물맛의 감별력이 무척 뛰어납니다. 차는 물맛이라고 합니다. 수돗물에서는 제대로 된 차 향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돗물은 순수한 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은 차를 좋아하기 때문에 해외에 갈 때도 꼭 마시던 차를 가지고 갑니다. 유럽이나 미국에 갈 때도 가지고 가는데, 차 맛이 영 나지 않습니다. 국내에서 녹차를 좋아하던 사람도 그곳에 살게 되면 녹차 대신

발효된 차를 마시곤 합니다. 물 자체가 순수하지 않고 석회가 섞인 물이기 때문에, 온전한 차 향기를 낼 수 없기에 그렇습니다.

차 이야기가 나왔으니 일화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1,200년 전 일인데, 당나라 때 장우신(張又新)이 쓴 <전다수기(煎茶水記)>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도 지방장관을 지낸 사람입니다. <전다수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계경이라는 사람이 지방장관으로 발령을 받아서 부임해 가는 도중에, 우연히 육우(陸羽)를 만나게 됩니다. 차 즐겨 마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육우는 차의 성인으로 1,200년 전에 실존했던 사람입니다. 차에 대한 문헌인 <다경(茶經)>을 썼고, 물론 그전부터 차 마시는 풍습은 있었지만 육우에 의해서 차가 세계화 되었으며, 세상에 널리 전파될 수 있

는 계기가 마련됩니다. 그래서 육우를 가리켜 차의 성인이니, 다신(茶神)이니 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같은 숙소에 머물게 되자 이계경이 무척 반기면서 육우에게 청합니다.

“육 처사가 차의 명인임은 세상이 익히 아는 바입니다. 마침 이곳 양자강 남령의 물이 소문난 물 아납니까? 이 두 가지 절묘함이 천 년 만에 한 번 만났으니, 이 좋은 인연을 어찌 헛되이 보낼 수 있겠습니까?”

양자강 남령이 물이 좋기로 소문이 났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산천 어디를 가나 좋은 물인데, 중국은 어디 물이 좋고, 어디 물이 안 좋고를 가리곤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좋은 인연이 만났으니 차 한 잔 마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시중들던 군사에게 배를 띄워서 남령의 물을 길어 오게 합니다. 한편 육우는 다구를 펼쳐 놓고

물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이윽고 물이 당도하자 육우는 표주박으로 물을 떠 올리면서 혼잣말로 중얼거립니다.

“강물은 강물인데 남령의 물이 아니라 강기슭 물 같은.”

남령의 물이라고 떠 왔는데, 남령의 물이 아니라 강기슭 물 같다고 혼잣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물을 길어 온 그 군사가 펄쩍 뛰면서, “소인이 배를 저어 강 깊숙이 들어간 것을 본 사람이 여럿 있는데 어찌 감히 거짓말을 하겠습니까?”하고 말합니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원래 이렇게 펄쩍 뛩니다. 그러자 육우는 아무말 없이 다른 그릇에 물을 절반쯤 쏟아 급히 멈추고, 표주박으로 남은 물을 떠 올리면서 말합니다.

“여기서부터 남령의 물이니라.”

이 광경을 지켜본 심부름꾼은 깜짝 놀라 앞드려 사죄를 합니다.

“사실은 소인이 남령으로부터 물을

길어 오다가 강기슭에 다다랐을 때 배가 흔들려서 물을 절반이나 엎질렀습니다. 줄어든 물이 두려워 강기슭 물을 길어 채웠습니다. 육 처사님의 감별력은 참으로 신령스러워 감히 속일 수가 없습니다.”

이때 그 자리에 있던 이계경과 수십명의 시종들이 깜짝 놀랐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차 마시는 사람들 혀가 그만큼 까다롭다는 것입니다. 차 맛은 물맛이 좌우합니다.

요즘 가뭄이 90년 만의 가뭄이라고 합니다. 또 어떤 나라에서는 홍수가 나서 집과 가재도구가 떠내려가고 전답이 매몰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아마도 이런 현상은 갈수록 심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하는 행동들이 그러한 결과를 불러들이기 때문입니다. 지구 기온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수지가 바닥을 드러내고, 댐에 물이 얼

마밖에 남지 않았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런 뉴스를 접하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 자신의 저수량은 과연 얼마나 남아 있는가? 내게 주어진 시간의 잔고, 내 저수량은 얼마나 남아 있을까? 스스로 묻게 됩니다. 각자 자신의 저수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가 지나가면, 우리 몸속에서 그 하루가 지나갑니다. 명심하십시오. 오늘 하루가 줄어듭니다. 물을 함부로 버리지 않고 아껴 써야

하듯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무한한 시간이 아닙니다. 한정된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유용하게 쓸 수 있어야 합니다.

한번 지나가면 흐르는 강물처럼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나는 이야기들이, 가뭄에 비를 애타게 기다리는 기우제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2001년 6월 17일 정기 법회

•발체 : 「한 사람은 모두를 모두는 한 사람을」



차 이야기

글 • 법 정(法 頂)

입이 출출하거나 무료해지려고 할 때 개울물 길어다 마시는 차가 있습니다. '내가 산중에 살면서 차 맛을 모른다면 무슨 재미로 살까?' 이런 생각을 문득문득 하게 됩니다. 단지 차만 마시는 것이 아니고, 그 차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사물을 관조하는 여유를 갖게 됩니다. 삶의 맑은 여백 같은 것입니다.

*

차꽃에는 베이지색 노란 꽃술이 달립니다. 꽃을 따서 향기를 맡으니 찔레꽃 향기와 같습니다. 따서 찻잔에 올려 차 한 잔을 마시니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행복을 거창한 곳에서 찾지 마십시오. 내 둘레의 사소한 것으로 더없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

오늘 아침에는 샘물을 길어다가 오랜만에 차를 달였다. 홀로 마시면 그 향기와 맛이 신기롭다 했는데, 여럿이서 의례적으로 마시던 것과는 그 격이 다르다. 차를 들면서, 맑고 고요하고 한적함이 우리 삶에 어떤 몫을 차지하

능가를 다시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었다.

시끄럽고 어지러운 세상살이이기 때문에 때로는 맑고 고요하고 한적한 삶의 여백이 필요하다. 이런 여백을 통해서 시들해지기 쉬운 일상을 되돌아 보고 개선할 수 있다. 개선과 개혁이 없는 삶은 한낱 타성이고 습관에 지나지 않는다. 타성과 습관은 사람을 찌들게 하고 시들게 한다.

*

선승들은 예나 지금이나 항상 차를 마시고 있어 별로 자랑거리가 될 것도 없지만, 최근 많은 사람들이 차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은 기특한 일이다. 먼저 밝혀 둘 것은, 차 마시는 일이 결코 사치나 귀족 취미가 아니라 생활의 일부라는 점이다.

*

사람이 일반 동물과 다른 것 가운데 하나는 음식을 먹는 일이 빈 밥주머니를 채우기 위해서만이 아니고, 아름답고 향기로운 미각을 통해 정신적으로 기쁨을 느끼고 위로를 삼으려는 취향도 함께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사람들이 몸의 건강에는 분명히 해로운 줄 알면서도 끊임없이 담배를 피우고 술을 즐겨 마시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일 것이다. 차도 마찬가지다. 인간의 생활 가운데 만일 이런 기호식품이 없었다면 우리들의 안뜰은 예측할 수 없을 만큼 삭막하고 어두워졌을 것이다.

*

술은 사람을 들뜨게 하고 취하게 하는데, 차는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정신을 맑게 한다. 차의 고전인 육우(陸羽, ?~804)의 <다경(茶經)>에서 ‘울분을 삭이는 데는 술을 마시고, 정신의 어둠을 씻는 데는 차를 마신다.’고 지적했듯이, 술이 시끄러운 집합을 위해 발명된 것이라면, 차는 한적한 모임을 위해 마련된 것이다. 술은 아무데서나 아무하고도 마실 수 있지만 차는 그럴 수 없다. 무엇보다도 마시는 그 분위기와 상대를 가리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

차는 고도로 승화된 미의식의 세계다. 그러므로 먼저 그 분위기와 조건이 가려져야 한다. 흔히 다도의 정신으로 화경청적(和敬淸寂)을 들고 있다. 평화롭고 예절 있고 맑고 고요한 분위기여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차맛을 진짜로 알게 되면 ‘화경청적’의 덕이 곧 그 사람의 인품으로까지 배어나게 될 것이다.

*

차를 즐겨 마시는 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바이지만 함께 마시는 사람의 수가 적어야 차맛을 제대로 알 수 있다. 객이 많으면 시끄러워지고, 시끄러우면 차의 은은한 운치가 사라져 버리기 때문이다.

*

다인(茶人)들이 다구를 귀하게 여기는 것은 멋을 부리거나 도락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차맛을 제대로 음미하기 위해서다. 값이 비싸다고 해서 좋은 그릇이라고만은 할 수 없다. 값이 험하더라도 다실의 격에 어울리면 차

맛을 낼 수 있다. 찻잔은 될수록 흰 것이 좋다. 차의 빛깔을 제대로 음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끓인 물을 한숨 식혔다가 부어 차를 우리는 다관은 차를 따를 때 물이 똑똑 끊어져야 하는데, 그것이 잘 안 돼 차를 바닥에 흘리면 차맛이 반감되고 만다.

다음으로는 질이 좋은 물이다. 수돗물은 소독약(표백제) 냄새 때문에 차맛을 제대로 내기가 어렵다. 더구나 요즘처럼 오염된 대도시의 수돗물로는 차가 지니고 있는 그 섬세한 향기와 맛을 알기 어렵다. 산중의 샘물이 그 중 좋은 물인 줄은 알지만 도시에서는 구할 수 없으니, 가정에서 수돗물을 여과해서 쓸 수밖에 없다.

*

좋은 차는 색, 향, 미(味)가 갖추어져야 한다. 차만이 아니라 제대로 된 음식이라면 빛과 향기와 맛이 온전히 갖추어진 것이다. 녹황색이 돌고 맑고 은은한 향기와 담백하고 청초한 맛이 나는 것이 좋은 차다.

*

차는 식물 중에서도 가장 맑은 식물이다. 차의 그토록 오묘한 향과 맛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그것은 밤의 별빛과 맑은 바람과 이슬, 그리고 안개, 구름, 햇볕, 눈, 비…… 이런 자연의 맑디맑은 정기가 한데 엉겨 이루어졌기 때문에 것처럼 미묘한 빛과 향기와 맛이 나는 것이다.

*

선승들이 차를 즐겨 마시는 것은 항시 맑은 정신을 지니려는 뜻도 없지 않지만, 그들의 삶이 차가 지니고 있는 그 담백하고 투명한 맛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이다. 온갖 겉치레를 훌훌 벗어 버리고 솔직하고 단순하게 살고자 하기 때문이다. 선은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무일물無一物의 경지에서 비로소 참된 맛과 참된 향기와 참된 색을 느낄 수 있다. 조주 선사가 찾아오는 나그네들에게 한결같이 차를 내놓으면서 “차나 마시게.”라고 한 것도 바로 이런 뜻에서다.

*

우리가 한 잔의 차를 마실 때 온 강물을 한입에 마셔 버리는 그런 심정이 아니고는 진정한 차맛을 알 수 없다. 어디 강물뿐인가. 온 세상을 통째로 삼켜 버려야 비로소 온갖 얽힘에서 벗어나 평안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이 다선 일미요, 또한 선가의 차 마시는 법이다.

*

달과 함께 길어온 샘물로 햇차를 달여 첫 잔을 불전佛殿에 공양하고 다실에 돌아와 둘째 잔을 드니, 공복에 운상의 싱그러운 향기가 뺨속에까지 스며드는 것 같았다. 이따금 느끼는 바이지만, 향기롭고 맑은 한잔의 차를 통해서 나는 얼마든지 행복해질 수 있다. 행복의 조건은 우리들 일상의 여기 저기에 무수히 널려 있다. 그걸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만 있으면 된다.

*

차는 공복에 마셔야 그 향기와 맛을 알 수 있다. 나는 올 겨울들어 새벽으로 차를 마시고 있다. 새벽 예불을 드리고 나서 좌선 끝에, 다기를 내놓고 차관에 물을 끓여 여명의 창 아래서 차를 두어 모금 마시고 있으면, 이 오두막의 생활에 잔잔한 즐거움이 피어 오른다. 흔히 우리는 차를 잔 가득 부어 습관적으로 마시는데, 잔의 3분의 1이나 4분의 1쯤만 따라 두어 모금 음미해 보아야 차의 고마움과 그 진미를 알 수 있다. 공복에 마시는 차는 우리 영혼을 맑게 한다. 이 산중에서 음미할 차가 없다면 내 삶은 국이 없는 맨밥이 되고 말 것이다.

*

내가 혼자 산중에 살면서 차를 마시는 일이 없다면 얼마나 뻑뻑하겠습니까? 한 잔의 차를 통해서 늘 삶에 대한 고마움, 이 세상에 대한 고마움, 출가 수행승이 된 고마움을 느끼게 됩니다.

*

홍차는 그 빛깔과 맛이 여느 차와는 다른 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릇도 아주 얇고 흰 고급스런 잔이 어울린다. 홍차에는 레몬을 한쪽 넣거나 혹은 코냑을 두어 방울 떨어뜨리면 향기롭게 마실 수 있다. 소프트 케이크를 곁들이면 더욱 좋겠지만, 이 산중이 어디라고.

*

차를 가까이하면서 내 기억에 아직도 생생하게 그 향기가 배어 있는 차는

어느 해 겨울 불일암의 다실에서였다. 함박눈이 펄펄 내리는 해질녘 금당 선생이 찾아오셨다. 주방에 내려가 함께 저녁을 먹고 다실에 들어와 밤이 이슬 하도록 차에 얽힌 이야기를 나누면서 차를 마셨다.

그때 가져온 차가 납작한 갑에 든 용정차였는데, 향기와 맛과 빛깔을 제대로 갖춘, 눈이 번쩍 뜨이는 일급품이었다. 보통 차는 두세 번 우리면 그것으로 그만인데, 그 용정차는 대여섯 번을 우려도 한결같은 맛과 향기였다.

그 후로는 같은 용정차인데도 그런 차를 접하지 못했다.

좋은 차는 좋은 물을 만나야 제 맛을 낼 수 있다. 사람도 좋은 짝을 만나야 좋은 사람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이 글을 쓰고 있으니 문득 차를 마시고 싶다. 홀로 마시는 차를 신神이라고 했던가.

*

샘물을 길어다 차를 달인다. 다로茶爐에서 솔바람 소리가 들린다. 혼자서 마시는 차를 속세의 번거로움에서 떠나는 이속離俗이라 하던가. 아 이 은은한 차맛을 그 누가 알까.

*

차 좀 마시는 데 뭐 그리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한지, 차와 그릇은 진작 구해놓고도 마실 엄두를 못 내고 있다는 말을 더러 듣는다. 누구나 마시다보면 자기 나름의 요령이 생기게 마련이다. 밥 먹는 법 따로 배우지 않더라도 밥 먹을 줄 알고, 술 마시는 법에 대해서 강의 같은 것 듣지 않더라도 술만

잘들 마시던데 뭐.

그러니 먼저 마셔보았다고 해서 제발 극성들 떨지 말아달라는 소리다. 큰 길에는 문이 없듯이, 다도(茶道)에도 또한 문이 있을 수 없다. 배고픈 사람이 밥을 먹듯이, 차를 마시고 싶으면 조용히 마실 뿐이다.

*

아무리 뛰어난 예술 작품도 작가는 그 작품에 절반의 혼 밖에 붙여넣을 수 없다는 말이 있다. 나머지 절반의 혼은 소장자, 즉 그 작품을 아끼고 사랑하면서 잘 활용하는 사람에 의해서 완성된다. 때깔이 고운 이 찻잔은 보원요 나름의 기법으로 최근에 빚어진 것인데 찻잔의 크기도 알맞고, 잡음새도 좋고, 전도 원만하고, 굵도 넉넉해서 보고 매만지지만 해도 즐겁다. 이 찻잔은 앞으로 내 눈길과 손결에 의해서 세월과 함께 완벽한 그릇으로 형성되어 갈 것이다.

*

산중에서 홀로 사는 우리 같은 부류들은 뭇보다도 자기 자신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함께 게으르지 말아야 한다. 게으름이란 무엇인가. 단박에 해치울 일도 자꾸만 이다음으로 미루는 타성이다. 그때 그곳에서 그렇게 사는 것이 그날의 삶이다. 그와 같은 하루하루의 삶이 그를 만들어 간다. 이미 이루어진 것은 없다. 스스로 만들어 갈 뿐이다.

이런 때 마시는 한 잔의 차는 단연 '단이슬'에 견줄 만하다. 불전에 차공양 올리고 나서 나도 그 아래서 마신다. 내친김에 다기도 겨울 것으로 바꾸었다.

겨울철에 쓰는 다키는 손안에 들어올 만큼 작은 것이 살뜰하다. 차갑게 느껴지는 백자보다는 주황색이나 갈색 계통의 다기가 한결 푸근하다.

*

경사진 차밭에서 삼삼오오 아주머니들이 흰수건을 쓰고 차를 따는 모습은 참으로 아름답다. 그 어떤 일보다도 보기 좋은 풍경이다. 차를 따는 그 모습이 결코 노동으로 보이지 않는다. 저만치서 바라보면 다른 세상 사람들이 차밭에 내려와 진양조 가락에 너울너울 춤을 추는 것 같다.

*

야생차라고 해서 다 좋을 수는 없다. 차나무도 생명체이기 때문에 생육에 따른 알맞은 토양과 기상이 반겨주어야 제대로 된 맛과 향기와 빛을 지닐 수 있다. 세계적으로 이름난 차의 산지에 가서 보면 기온차가 심한 고지에서 생산된 차를 으뜸으로 친다.

동인도 다질링에서는 표고 9백에서 2천 4백 미터의 고지에서 차를 수확한다. 해발 8천 6백 미터의 칸첸중가 히말라야. 장엄한 설산을 배경으로 차를 따고 있는 모습은 이 세상 풍경 같지 않다. 나는 몇 해 전 그곳을 여행하면서 차 따는 풍경을 하루 종일 바라보았다. 설산 앞에서 안복(安福)을 누리던 그때의 기억이 지금도 푹푹하게 간직되어 있다.

그곳에서는 주로 홍차를 만드는데, 차의 수확기간이 1년 중 약 2백 일이다. 이 가운데서 가장 뛰어난 고급차는 봄 여름 가을 중에서도 각기 10일밖에 안 되는 짧은 기간에 채취된 어린 잎로 만든다.

*

10년 전 처음으로 인도 대륙에 발을 딛고 두어 달 남짓 나그네 길에서 지칠 대로 지친 끝에 인도양의 진주라고 하는, 혹은 눈물방울이라고 하는 스리랑카에 갔었다. 실론티의 산지로 유명한 '누아라 엘리아'는 해발 1천 5백 고지에 있다. 경사진 차밭은 잘 가꾸어진 정원처럼 아름답다. 산중턱은 거의 차밭으로 가꾸어졌는데 정상으로 올라가니 굽이굽이마다 검은 피부색을 한 여인들이 무리지어 차바구니를 메고 차를 따고 있었다. 그때 처음 본 풍경이라 두고두고 인상적이었다.

그때 한 제다 공장에 들렀는데, 때마침 차잎을 말리는 그 구수한 차향기가 어찌나 좋던지, 인도 평원에서 지친 심신에 생기가 돌았다. 긴 항해로 멀미를 하다가 육지에 닿아 흠향기를 맡았을 때의 그런 느낌이었다.

*

화개동에는 차밭만이 아니라 차와 다기를 파는 가게가 줄줄이 이어져 있다. 차 고장다운 풍물이 아닐 수 없다. 몇 군데 기웃거리면서 햇차 맛도 보고 다기 구경도 했는데, 대부분 차를 건성으로 마시는 것 같았다. 아무리 좋은 차일지라도 다루는 그 사람을 만나지 못하면 차가 그 맛을 제대로 낼 수 없다. 모처럼 마시는 귀한 햇차인데 그 맛은 한결같이 맹탕이었다.

차의 덕이 맑고 고요함에 있다면 차를 다루는 사람 또한 그런 기품을 지녀야 차맛을 제대로 낼 수 있을 것이다.

*

차를 마시려면 거기에 소용되는 그릇이 필요하다. 가게마다 다기들로 가득 가득 쌓여 있지만 눈에 띄는 그릇을 만나지 못했다. 대부분 차를 모르는 사람들의 손으로 빗어진 그릇들이기 때문이다.

차를 마시기 위해 그릇이 있는 것이지만, 다른 한편 그릇의 아름다움이 차를 마시도록 이끌기도 한다. 그릇에서 아름다움을 찾는 것은 마음에 맑음과 고요를 구하는 것과 같다.

*

차를 건성으로 마시지 말라. 차밭에서 한 잎 한 잎 따서 정성을 다해 만든 그 공을 생각하며 마셔야 한다. 그래야 한 잔의 차를 통해 우리 산천이 지닌 그 맛과 향기와 빛깔도 함께 음미할 수 있을 것이다.

*

녹차는 두 번 우리고 나면 세 번째 차는 그 맛과 향이 떨어진다. 홀로 마실 때 내 개인적인 습관은 두 잔만 마시고 자리에서 일어난다. 밖에 나가 어정거리면서 가벼운 일을 하다가 돌아와 식은 물로 세 번째 차를 마시면 앉은 자리에서 잇따라 마실 때보다 그 맛이 새롭다.

애써 만든 그 공과 정성을 생각하면 두 번 마시고 버리기는 너무 아깝다. 그렇다고 해서 앉은 자리에서 세 잔을 연거푸 마시면 한두 잔 마실 때의 그 맛과 향기마저 반납해야 한다.

*

차의 분량은 물론 찻잔의 크기 나름이지만 찻잔의 반을 넘지 않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다. 찻잔에 가득 차도록 부으면 그 차맛을 느끼기 전에 배가 부르다. 이런 차에는 차의 진미가 깃들일 수 없다. 차를 따르는 사람의 마음이 차의 품위에서 벗어난 것이다.

*

차를 마실 때는 모든 일손에서 벗어나 우선 마음이 한가해야 한다. 그리고 차만 마시고 일어나면 진정한 차맛을 알 수 없다. 차분한 마음으로 다기를 매만지고, 차의 빛깔과 향기를 음미하면서 다실의 분위기도 함께 즐겨야 한다.

차를 마시면서 나누는 이야기는 정치나 돈에 대한 것 말고 차에 어울리도록 맑고 향기로운 내용이어야 한다. 차를 마시면서 큰소리로 세상일에 참견 하거나 남의 흥을 보는 것은 차에 결례이다.

*

차의 운치는 담박하고 검소한 데 있다. 그릇이 지나치게 호사스러우면 차의 운치를 잃는다. 차의 원숙한 경지는 번거로운 형식이나 값비싼 그릇으로부터 해방되어야 한다. 그릇에 너무 집착하면 담박하고 검소한 차의 진미를 잃게 된다.

*

요즘 피꼬리 소리 들습니까? 피꼬리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햇차가 나올

무렵이면 피꼬리가 돌아옵니다. 피꼬리 소리를 들으면서 햇차를 마시면 그 차 맛이 훨씬 향기롭습니다.

*

지난 여름 연꽃차를 마신 이야기를 해야겠다. 연꽃은 날씨에 따라 개화 시간에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맑게 개인 날은 아침 6시쯤에서 꽃이 문을 열고 저녁 5시 무렵이면 문을 닫는다. 꽃이 피었다가 오므라든다는 표현이다.

연꽃은 나흘 동안 피는데 이틀째 피어날 때의 향기가 절정이라고 한다. 이틀째 피어난 꽃에 주로 벌들이 모여든다. 연꽃차는 이틀째 핀 연꽃이 오므라들 때 한두 잔 마실 정도의 차를 봉지에 싸서 노란 꽃술에 넣어 둔다. 이때 너무 많이 넣으면 그 무게를 못 이겨 꽃대가 꺾인다. 하룻밤이 지난 다음날 아침 꽃이 문을 열기 기다려 차 봉지를 꺼내어 차를 우려 마시면 연꽃차만이 지닌 황홀한 향취와 마주치게 된다.

이때 보통 차처럼 끓인 물을 식혀서 우리는 것보다는 차디찬 물로 차를 우려면 연꽃가에서 들던 바로 그 향기를 음미할 수 있다.

*

가을은 차맛이 새롭다. 고온 다습한 무더운 여름철에는 차맛이 제대로 안 난다. 여름이 가고 맑은 바람이 불어와 만물이 생기를 되찾을 때 차향기 또한 새롭다.

계절이 바뀌면 옷을 갈아입듯이, 다기도 바꾸어 쓰면 새롭다. 여름철에는 백자가 산뜻해서 좋고 여름이 지나면 분청사기나 갈색 계통의 그릇이 포근

하다. 여름철에는 넉넉한 그릇이 시원스럽고, 가을이나 겨울철에는 좀 작은 것이 정겹다.

무더운 여름철에 발효된 차는 그 맛이 텅텅하고 빛이 탁해서 별로지만, 가을밤 이슬해서 목이 마를 때 발효된 차는 긴장감이 없어 마실만 하다.

*

가을 바람이 불어오면 하늘이 높아지고 물이 맑아져 차맛도 새롭다. 어제 아침 가을에 어울리는 다기로 바꾸었다. 지난 해제날 보원요의 지현^{知軒}님이 새로 빚어 가져온 찻잔에 초가을의 향기를 음미하면서 모처럼 산중의 맑은 한적을 누렸다

*

이웃나라에서는 차 품평을 늦가을에 한다는 말을 들었다. 봄철에 갓 만들어 낸 햇차는 그 빛과 향기와 맛이 비교적 신선하다. 그러나 고온다습한 장마철을 거쳐 늦가을에 이르면 그 차의 우열이 저절로 드러난다.

철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좋은 차를 대하면, 한 잎 한 잎 정성을 다해 선별해서 만든 그 사람에게 저절로 고마운 생각이 든다. 만든 사람의 그 인품이 차 향기에 배어 있는 것 같다.

이런 차 맛을 두고 생각할 때 사람의 일도 또한 이와 같을 것 같다. 어떤 상황 아래서도 변덕을 부리지 않고 그가 지닌 인품과 인간미를 한결같이 이웃과 나눌 수 있다면 그는 만인이 기대고 의지할 수 있는 좋은 이웃이다. 이런 친구를 가까이 둔 사람은 복 받은 사람이다.

하회탈 같으신 스님

글 • 변택주

법정 스님이 묵언을 마치고 겪으신 이야기. 조계산 불일암에서 삼동결제를 하고 혼자 토굴에서 계실 때 일이다. 마당 한쪽에는 ‘묵언중(默言中)’이란 표지판이 세워져 있었다. 방문객은 누구라도 어떤 경우에도 말을 시키지 말라는 뜻이다. 토굴에 찾아온 방문객은 말없이 발길을 돌려야 했다. 어찌 다 묵언하고 계신 스님과 마주친 객들은 시퍼런 스님 서슬에 합장하고 자리를 비켜섰는데…….

이듬해 봄 묵언을 풀고 스님이 처음 만난 사람은 약초를 캐러 온 인근 마을 할아버지.

“스님, 물 한 모금 하려고 왔습니다.”

스님이 혀를 겨우 움직여 말을 건넸다.

“아, 드세요.”

스님은 다실로 할아버지를 불러들여 자리를 폈다.

“차 한 잔…….”

약초를 캐러 온 할아버지는 어서 일어날 생각을 하고 차를 마셨다. 두 잔, 석 잔.

“이젠 일어나겠습니다. 스님.”

자리를 털고 일어나는 할아버지를 스님은 그냥 놔주지 않았다.

“잠깐!”

“.....?”

할아버지가 잠시 머뭇거렸다. 스님은 벽장에서 양말을 꺼내 할아버지에게 건네주며 말을 시켰다.

“할아버지, 짚었을 때 힘깨나 쓰셨겠어요.”

“아, 네.”

할아버지는 그저 건성으로 대답한다.

다시 주저앉은 할아버지가 한 10여 분쯤 지나 약초를 캐는 연장이 든 자루를 챙겨 들고 주섬주섬 일어서려는데.

“아, 참. 이것 빠뜨렸네!”

스님은 마치 중요한 일을 놓친 듯 서둘렀다. 할아버지를 주저앉힐 구실을 찾았다.

“오늘은 약초보다 이걸 가져가 드세요.”

스님이 벽장 안에서 꺼내놓은 것은 벌꿀에 절인 인삼이다.

“아, 이 귀한 것을…… 스님이 드시지 않고…….”

그제야 할아버지는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하는 스님 마음을 알아차리고는 아예 주저앉아 점심까지 얻어먹으며 말상대가 되어 드렸다.

“그때 겁이 나더구먼. 할아버지가 일어서면…… 어찌나하고, 허허.”

사람이 그렇게 귀한 적이 없으셨단다.

이야기 한 쪽지 더, 법정 스님이 목욕하신 날. 아궁이에 장작불을 많이 모아두고 빨래를 방바닥에 널어놓고 그냥 쓰러져서 살포시 잠이 드셨다. 한밤중에 잠이 깨신 스님은 문득 밤중에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하나 궁금해

져서 라디오를 켜셨는데 바로 그때.

“안녕하십니까? ‘한밤의 음악 편지’ 시간입니다. 오늘은 법정 스님 ‘무소유’를 낭독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스님은 다락에 가서 옛 책을 꺼내다가 펼쳐서 라디오 진행에 따라 읽어 보셨다.

“참, 오랜만에 무소유를 읽었네. 하하하.” 웃으셨다는데…….

스님은 조그만 일에도 천진스런 아이들처럼 감동하시고 많이 웃으신다. 넘치는 스님 유머감각은 영락없는 개그맨 같으시다. 극락전 앞뜰에 가득한 불자들을 향해 법문하실 때면 몇 분 간격으로 계속 웃음이 터진다. 불자들은 웃다 말고 두 손을 모으며 고개를 끄덕인다. 얼굴이 구겨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거리낌 없이 활짝 웃으실 때 스님 얼굴은 영락없는 하회탈이다. 당신에게 엄격하고 가르치실 때 준엄하시지만, 속내는 여리고 자상하고 구수한 스님은 마음 그대로 탈이 되신다. 하회탈.

우리가 평범한 일상에서 벗어나 잔치 마당으로 들어가려면 모든 게 거꾸로 서야 한다. 처연한 걸음은 춤이 되고, 늘 먹고 마시던 밥과 물은 떡과 술로 바뀐다. 일상에서 늘 주고받던 건조한 말은 노래와 시가 된다. 이렇게 모습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을 우리는 탈바꿈이라고 한다. 한바탕 놀이마당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탈춤이다. 일본 탈들은 대개 표정이 없지만, 한국 탈들은 표정 변화가 무쌍하다.

그 가운데서도 늘 파안대소를 머금은 탈은, 엄숙한 양반이 탈바꿈 한 양반 탈이다. 탈을 쓰는 일은 탈바꿈하는 일이다. 하지만 스님은 탈바꿈 없이 바로 하회탈이 되는 기적을 일으키신다.

식사와 급유

글 • 고 현

회의가 끝나면 이따금 길상사 근처에 있는 식당에서 식사를 할 때가 있다. 법인 이사들, 지역 본부장과 운영위원장들, 길상사 스님들, 중앙본부 직원들까지 움직이다 보면 그 숫자가 30명이 넘을 때도 있었다. 그런 경우 법정 스님 식탁만큼은 꼭 별도로 부탁하여 맨밥에 시래깃국이나 김치, 나물 등 풀루 반찬 외에는 어느 것도 못 올리게 했다.

상을 길게 붙여서 가족들이 서로 마주 보고 앉게 하시고 당신은 항상 별식이 차려진 상단 정면에 앉으셨다. 당신 자리에서 여러 개의 상을 지나 양쪽 끝자리에 앉은 젊은 사람들까지 다 보고 싶어 하셨고 가족들의 식사 모습을 흐뭇한 눈으로 지켜보곤 하셨다. 때론 제가자들끼리만 이것저것 먹기가 죄송스러워 뻔히 알면서도 이따금 주안酒案을 권하는 법우들도 있었다.

“스님, 보약으로 아시고 이 곡차 한 잔만, 저 갈빗살 한 점만 드시면 안…… 될까요?”

“나는 전생에 곡차도, 생선도, 육고기도 물리도록 많이 먹어 본 사람ियो, 전생에 못 드신 여러분들이나 많이 드시오.”

“시님, 그라믄 전생의 생선 맛하고 이생의 생선 맛이 우째 다른지 한 점만…… 안 되겠습니까?”

“일평생 지켜온 정절을 오늘 밤에 깨란 말이요? 그동안 지켜온 세월이 아까워서도 못 하겠소.”

항상 웃으시며 늘 같은 대답을 하셨다. 그런데 오늘 밤은 스님 곁에 앉은 법우들만 들을 수 있는 조크를 혼잣말로 보태셨다.

“그래, 이렇게 가족들이 모여 정을 나누며 먹는 것이 식사고 공양이지, 연료 떨어진 자동차에 기름 넣는 것처럼…… 혼자 살며 혼자 먹는 건 급유야. 급유…….”

당신은 수저를 드는 등 마는 등 그저 가족들 바라보시는 정겨움에 빠져 계셨다. 분명 스님은 조크를 하신 건데 나는 그만 ‘급유’라는 씩씩한 말씀에 조용히 수저를 놓고 말았다.

영하 20도가 오르내리는 강원도의 깊은 산속에서 이 혹한에 도끼로 깎은 얼음조각을 솥에 넣고, 장작불을 지펴 얻은 그 물로, 70 노인네가 혼자 밥을 짓는 모습이 선하게 잡혀 왔기 때문이다. 산 중턱, 서너 집 사는 산마을 한쪽 모퉁이에 15년 된 통차를 세워놓고, 귀가 떨어져 나갈 이 엄동설한 한밤중에 혼자서 터벅터벅 산을 오르시는 전경이 그려지자 자꾸만 목이 메어왔다.

당신 글 속에선 타고난 재주로 자연을 예찬하지만, 당신 계신 그곳은 하루 걸러 눈보라가 친다는데, 이 식사가 끝나고 출발해봐야 얼음장 같은 텅 빈 방 그곳을 새벽 2시쯤에 도착하여 아궁이에 군불 지피고 자리에 누우면 3시쯤 되시려나.

나는 돌아오는 심야 고속버스 안에서 스님의 모습이 자꾸만 따라붙어 눈앞이 흐려지곤 했다. 쇠심줄 같은 노인네, 징그러운 영감탱이…….

자고 일어나 차를 마시니

글 • 충지 선사

배고파 밥을 먹으니
밥맛이 좋고

자고 일어나 차를 마시니
그 맛이 더욱 향기롭다

외떨어져 사니
문 두드리는 사람 없고

빈집에 부처님과 함께 지내니
근심 걱정이 없네



• 발취 : 「새들이 떠나간 숲은 적막하다」 눈 고장에서

술은 먹지 말아라

글 • 법 정(法 頂)

또 가을이 온다. 산에는 머루, 다래, 어름, 이런 산과일들이 여물어 간다. 하늘은 저렇게 높푸르고…….

가을!

가을은 아무래도 식물성 기질인 내 계절만 같애. 가을바람이 우수수 나뭇잎을 스칠 때 내 마음은 그만 허전해서 그대로 배길 수가 없어. 그래서 그 허전을 메꾸노라고 머언 날의 기억을 되씹고 하지.

가을의 병든 바람 속에 나비 나래는 무거워 가고…….

이 가을에 우리도 저런 열매처럼 실컷 여물어 보자. 우선 많이 읽고, 또 사색도 해야겠다. 철학을 해야지.

한 가지 부탁은 술은 절대로 먹지 말아야 한다. 구태여 여러 가지 해독을 말하진 않지만, 우선 작은아버지의 건강과 우리 집의 곤궁을 보더라도 술에서 온 것이 아니더냐?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속세에서의 경험이 있다. 부처님 말씀에도 술을 마시면 우리의 지혜종자(知慧種子)가 없어진다는 것이다.

그래서 손으로 술집을 가리키기만 해도 오백 생 동안을 손 없는 보報를 받는다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나의 지나친 염려이기를 바란다. 절대로 우리를 망치는 술은 안 먹기!

졸업하고 어떻게 하려는지 궁금하다. 될 수 있는 대로 진학해야 한다.
안녕히

1958년 8월 27일

정 합장



* 발췌 : 마음에 따르지 말고 마음의 주인이 되어라 / 책읽는섬

「마음에 따르지 말고 마음의 주인이 되어라」는 법정 스님이 출가 직후 사촌동생인 박성직에게 보낸 편지를 묶은 것이다. 박성직은 어린 시절 한집에서 같은 방을 쓰며 친형제처럼 자랐다. '나 대신 네가 아들 노릇 해 달라'는 스님의 부탁을 받들어 결혼한 뒤에도 법정 스님의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다. 이 편지는 청년 박재철이 승려 법정으로 변해가는 모습이 오롯이 담겨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새물에 끓여야 차 맛도 좋다

글 • 김옥림

밤이 이슬하도록 글을 읽다가 출출한 김에
차라도 한 잔 마실까 해서 우물로 물을 길으러 간다.
길어 놓은 물보다 새로 길은 물이라야 차 맛이 새롭다.
차 맛은 곧 물맛에 이어지기 때문이다.

- 법정 -

새 책, 새 옷, 새 차, 새 집 등 새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좋다. 새것이라는 말엔 전혀 때가 묻지 않고, 깨끗하고 신선하다는 느낌이 물씬 배어나기 때문이다.

법정 스님은 밤늦도록 책을 읽다 차를 마시기 위해 길어다 놓은 물을 두고도, 새물을 길러 우물로 간다고 했다. 그 늦은 시각에 물을 길러 가는 이유는 단지 맛있는 차를 마시기 위해서다. 차를 즐겨 마시는 수행자로서 차를 새물에 끓여야 더 맛있다는 것을 경험 상 잘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번거롭고 수고스러운 것도 마다하지 않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이야기 같지만 그렇지 않다. 맛있는 차를 마시기 위해서도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하듯, 하물며 자신이 하는 일은 어떠하겠는가. 자신이 하는 일에서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새로운 생각, 새로운 방법, 새로운 공부 필요하다.

그렇다. 차도 새물에 끓여야 맛있듯이, 자신이 하는 일이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새로움을 찾기 위한 노력과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김옥림· 시와 소설, 에세이, 동화, 동시, 교양, 인문, 자기계발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집필 활동을 하는 시인이자 아동문학가이다. 20년 넘게 YWCA, 도서관, 평생교육정보관, 여성회관 등 각 기관단체에서 어린이들과 어른들에게 글쓰기 강의를 하는 한편, 어린이 글쓰기교실인 '초우서원'을 창립해 일주일에 한 번씩 동시와 동화 등 글쓰기 지도를 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잠정 연기되었던
“법정 스님 열반 10주기 특별 좌담 - 법정님을 물들이다”는
길상사 일요법회가 봉행 되는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정 스님의 향기로운 글 & 금강경 모음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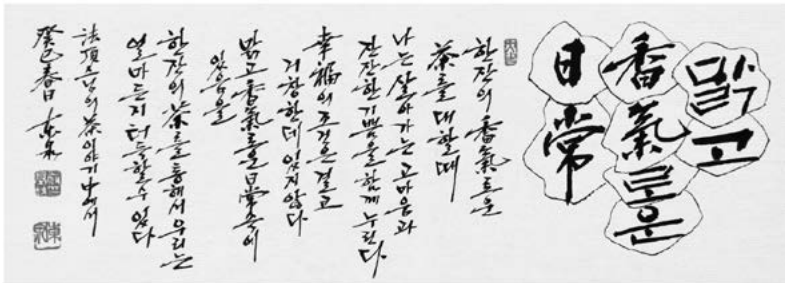
5월 27일(수) ~ 6월 7일(일) / 길상사 내 설법전

불기2564년 부처님오신날과 더불어 법정 스님 입적 10주기 추모 문화 행사로 서예가 동천 엄기철의 “법정 스님의 향기로운 글과 금강경” 전시회가 개최됩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한국불교종단협의회에서 불기 2564년 부처님 오신날 봉축 일정을 윤사월초파일(5월 30일)로 연기함으로 인해, 지난 5월 27일(수)부터 6월 7일(일)까지 12일간에 걸쳐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 법정 스님 께서 남기신 주옥같은 명문장을 발췌해서 쓴 작품 40여점과 그동안 지속적으로 해왔던 금강경 대표 작품 및 계송 20여점 그리고 반야심경을 비롯한 일반 작품 20여점 등 총 80여점의 작품이 전시됩니다.

추사체를 연구하며 금강경 전문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서예가 동천 엄기철 선생은 평소 법정 스님의 책을 자주 읽으면서, 어떻게 하면 스님의 말씀처럼 집착을 끊어내고, 무소유의 삶을 실천할 수 있는지 스스로에게 되물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자연과 함께하는 충만한 삶은 어떤 것인지를 음미

하며 인간다운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는 금과 옥조를 통하여 자신을 되돌아보며 추스르게 된다고 합니다.



지난해 10월 인사동 한국미술관에서 펼친 “금강경 특별전”을 통해 추사체로 쓴 대작을 비롯해 70cm이내 작은 지면에 5,300여 글자를 극세필로 표현한 작품까지 다양한 금강경을 선보이며 놀라움을 안겼던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도 대표작품을 비롯해 새롭게 시도한 목간체로 쓴 최근작 등을 비롯한 여러 금강경을 전시에 펼쳐 보입니다. 본회 회원님과 길상사 신도님의 많은 관람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동천 엽기철· 1955년 충청북도 충주 출신의 작가는 대기업에서 직장 생활을 하며 1988년 서예에 입문하여 올해로 서력 33년째로, 갤러리를 겸한 작업실 “추예랑”에서 금강경 작업과 후진 양성에 매진하고 있으며 (사)한국추사체연구회 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의 작품판매 수익금은 맑고 향기롭게 장학금으로 기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중앙모임 소식 (02-741-4696)

2020년 '맑고 향기롭게·대학생 장학사업' 시행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에서는 2020년 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 시행에 따라 장학금 지원 대상자를 고등학생에서 대학생으로 선발하여 지원합니다. 본회 장학 사업은 가정 형편이 어렵지만 장학금 수혜를 받지 못하거나, 기존 민·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대학 장학금에서 등록금 지원만으로 학업을 이어가기 힘든 학생 그리고 타 장학사업 선발에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학생을 찾아 장학금을 지원하는 목적입니다.

본회 장학 사업은 법정 스님이 수필집 '무소유' 인세를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나눠줬던 뜻을 이어 창립 당시부터(1994년 3월26일) 시작하여, 1999년부터는 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량 길상사를 보시한故김영한 보살의 무주상보시의 정신을 담아 '맑고 향기롭게-길상화 장학생'으로 명칭을 변경한 바 있습니다. 지난 26년간 총 717명의 중·고등학생에게 약 10억 5천여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시작되면서 올해부터 「맑고 향기롭게 대학생 장학사업」으로 명칭과 대상을 변경하게 되었으며, '맑고 향기롭게'라는 용어에는 법정 스님의 무소유 정신과 길상화보살의 무주상보시의 숭고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장학생들이 지식보다는 지혜를 넓히고,

맑고 향기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 공헌활동 참여를 유도해 인연을 맺어나갈 계획입니다.

- **서류 심사** : 6월 10일(수)
- **선정 발표** : 6월 18일(목) 개별 통지 및 학교 행정과 통보
- **장학증서 수여식** : 6월 30일(화) 오후 2시 예정
- **문의처** : 맑고 향기롭게 02)741-4696 (총무팀)
- **장학금 후원 동참 계좌** : KEB하나은행 220-890015-10204 / 맑고 향기롭게
- **자세한 내용은** 맑고 향기롭게 홈페이지 (www.clean94.or.kr) 공지 참조

맑고 향기로운 가게(불교문화용품 판매점) 운영 및 맑고 향기롭게 문화상품 개발의 필요성

길상사내 불교문화용품 판매점인 '맑고 향기로운 가게'를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에서 위탁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전 이사장(4대)이자 길상사 주지 덕일 스님은 본회가 지속적으로 공익사업을 펼치기 위해서는 재정적인 안정이 필요하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회원들의 후원금이 줄어 들고 있는 상황에 맑고 향기롭게 문화상품을 개발하고, 자립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맑고 향기롭게를 설립한 법정 스님은 살아 생전 ‘관(官)의 도움을 받지 말라, 부자 동네에 손 벌리지 말라, 흥보나 언론의 도움 받지 말라.’는 소위 ‘3대 하지 말라’를 실무자에게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스승의 가르침을 받아 실천하는 것은 보람된 일이며, 그로인해 본회를 믿고 후원해준 많은 후원 회원들의 기부에 의해 26년째 지속해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환경과 사회복지가 국가 정책이 되었고, 공공 일자리로 전환된 상황에서 본회의 자원활동의 다양성이 담보상태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본회는 맑고 향기롭게 살아가기 운동의 취지를 더욱더 알리고, 무소유의 가르침을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으로 우리 ‘마음과 세상 그리고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가꾸는 운동을 우리의 자산의 ‘심볼과 로고’가 실린 불교문화상품으로 개발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이 문화상품들을 우리 회원부터 구매하여, 점차 불교계와 시민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문화 상품’으로 까지 이어질 수 있다면, 이는 그냥 수익사업의 일환이 아니라, 법정 스님의 뜻과 정신을 계승하는 활동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상품개발에 있어 회원님과 길상사 신도님의 다양한 재능기부와 참여 또한 기대됩니다.

* 가정에서 친환경 수세미, 리폼한 액세서리 등 친환경적이거나 재순환용품을 만들어 기증해주실 분의 도움을 기다립니다.

맑고 향기롭게 정기 자원활동 봉사자 모집

• 맑고 향기로운 반찬 나눔 조리 활동

맑고 향기롭게 중앙모임에서는 우리 주변에 홀로 사는 어르신, 장애인, 결손가정 460여 가구에 밑반찬 2가지(매주 목, 금요일)와, 김치(3월-10월 둘째 목요일)를 지원하고, 명절(설날, 추석)과 정월대보름, 부처님오신 날에는 생필품을 나누며, 연말에는 김장 김치를 대상자 가정에 15kg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예방과 감염 방지를 위해 봉사자들이 모여야 하는 조리 활동을 잠정 중단하고 반조리 식품으로 대체하여 나눔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여 일정이 확정되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진인 노인요양원 자원활동

진인 노인요양원 자원활동은 오전에는 시설 청소, 주방 봉사를 하고, 오후에는 어르신과 어울려 민요, 국악 등 놀이 활동으로 진행하였으나,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잠정 중단 중입니다. 요양원과 상의하여 참여 일정이 확정되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서울노인복지센터 자원활동

서울 종로구 안국역 옆에 위치한 어르신 이용시설 서울노인복지센터에서는 매일 2,000여 명이 넘는 어르신들께 무료로 점심을 제공하고 있으며, 맑고 향기롭게 자원활동팀은 매주 월요일에 참여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 활동이 잠정 중단중입니다. 센터와 상의하여 참여 일정이 확정되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생태사찰 가꾸기 봉사자 모집

본모임은 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량 길상사에서 우리 꽃과 나무를 심고 가꾸며 생명의 존엄을 배우고 사소한 일상생활일지라도 생태적으로 살라는 법정 스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자 길상사 생태사찰 가꾸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에 활동이 진행되오니 뜻을 함께 하고자 하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간편한 CMS 후원

금융결제원의 중개를 통해 후원자님의 계좌에서 후원금을 인출하여 본 모임으로 입금되는 방식으로 은행을 직접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없습니다. 사무국으로 직접 방문 혹은 본 모임 홈페이지에서 CMS후원 가입을 신청하면 됩니다.

자동이체 후원

후원자님이 원하시는 일자에 매월 일정 금액이 본 모임으로 입금되도록 하는 후원 방법으로 주민등록증, 통장, 도장을 지참하고 직접 은행을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후원금액 변동이나 중단 시 신청하신 은행에 직접 가셔야 합니다.

일시 후원

뜻 깊은 일이나 기념일을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경우, 정기적인 후원이 부담되는 경우, 본모임 회원은 아니지만 활동에 공감하여 일시적으로 후원하고자 하는 경우, 다달이 소식지를 받아보는 우편비로 소정의 금액을 후원하고자 하는 경우에 직접 본모임 후원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입니다.

※ 본모임 회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분 중에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필요한 분은 인적사항이 필요하므로 사무국으로 연락해주세요.

지로 후원 안내

가장 전통적인 방법으로 우편 배송되는 지로용지나 지로 번호를 통해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본 모임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 지로 번호 : 7618372

지로 번호로 은행에 가지지 않고도 인터넷 (www.giro.or.kr)에 접속하여 직접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6월 중앙모임 정기 활동 안내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 소식지 우편 발송 자원활동 : 2일(화) / 오전 10시~12시 / 세계일화실
- 필사모임(법정 스님 저서 읽기) : 9일(화), 23일(화) / 오전 10시~12시 / 세계일화실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 맑고 향기로운 반찬 나눔 자원활동 : 코로나19로 인해 봉사자들이 모여야 하는 조리 활동은 진행하지 않고 반조리 식품으로 대체하여 나눔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김치 나눔 자원활동 : 코로나19가 안정 세로 접어들면 봉사자와 상의하여 활동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 서울노인복지센터 점심 무료급식 자원 활동 : 코로나19로 인해 활동을 잠정 중단 중입니다.
- 진인 노인요양원 원내 청소 및 오후 놀이 마당 정기 자원활동 : 코로나19로 인해 활동을 잠정 중단중입니다.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 의류 재활용 봉사모임 : 코로나19로 인해 활동을 잠정 중단중입니다.
- 생태사찰 가꾸기 모임 : 매주 월, 목요일/길상사 경내
- 숲기행은 코로나19로 인해 상반기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정기 재정 후원〉

- 시사각장애인 호송 단체 '부름의 전화' 정기 후원
- 서울 지방 변호사협회 결연 청소년 지원
- 인도 다람살라 잠양(jamyang) 비구니 스님 학교 후원

후원계좌안내(CMS, 계좌입금)

'길이 열리는 만큼 물이 흐르듯 본 모임의 사업은 100% 회원님의 후원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맑고 향기롭게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활동소식을 비롯하여 법정 스님의 글과 삶의 지혜가 담긴 알차고 유익한 월간 '맑고 향기롭게'를 정기적으로 받아 볼 수 있습니다.

• 일반사업 후원계좌

국민은행
817-01-0253-129
KEB하나은행
201-890400-87705
농협 029-01-199412

• 결식이웃 후원계좌

국민은행
817-01-0255-458

• 아름다운 마무리 후원계좌

신한은행
100-013-787953

• 장학금 후원계좌

KEB하나은행
220-890015-10204

• 예금주 : (사)맑고 향기롭게

*후원하신 금액은 연말정산시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의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 : 02.741-4696 / 홈페이지 : www.clean94.or.kr

• 이메일 : clean94@hanmail.net / 주소 : 서울 성북구 선잠로5길 68 길상사내



대구모임 (053-753-8883)

• 대구모임은 2층을 회원모임 공간과 사무실로 3층은 법정스님 자료와 도서, 대중강연을 진행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 활동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서 함께 활동할 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홀로 어르신 밑반찬 조리, 배달 및 말벗 나눔**
: 매주 수요일 / 음식조리활동(10시~13시), 배달 및 말벗활동(19시~21시)

• **연꽃 피는 집(차매노인 요양시설) 정기방문 자원봉사활동**: 매월 셋째 화요일 / 대구은행 본점 앞 9시 출발 / 목욕, 식사도움, 빨래 정리, 말벗

• **청도 운문사 봉사**: 매월 둘째 주 금요일 / 대구은행 본점 앞 9시 집결, 출발 / 공양 준비 및 공양재료 다듬기, 청소 등

• **햇살청소년자원사업**: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 가정에 물품 및 문화정서 지원 프로그램 / 분기별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가정과 함께 영상 및 문화기행 진행

• 정기 자원 활동가 모집

(사)맑고 향기롭게 대구모임은 소외된 이웃에게 나눔을 실천함으로써 삶의 행복을 찾고자 하는 분들의 참여를 수시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 홀로어르신 반찬 나눔 조리봉사: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 맑고향기롭게(소식지)발송: 매월 초

* 사옥 관리 및 청소: 월중 수시

* 홀로어르신 반찬 나눔 배달봉사: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 대구모임 3층 '시민서로배움터' 강좌 안내

맑고 향기롭게 3층 서로배움터에서 참선 및 작은 임제록 공부가 시작되었습니다. 임제록 이후 금강경수업이 시작 될 예정입니다.

회원, 봉사자분들, 그 외 공부를 시작해보고 싶은 신 모든 도반님들을 환영합니다.

* 시간: 매주 화, 금 오후2시

* 교재: 무비스님의 작은 임제록

• 법정 스님 책읽기모임 '일기일회' 함께해요

매월 셋째 주 금요일 저녁7시에 회원들이 함께 모여, 법정 스님의 저서 읽기 모임인 '일기일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정 스님의 말씀과 지혜를 책에서 배우고 나누는 시간을 함께 할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후원 : 대구은행 002-05-016277-8 (사)맑고 향기롭게 대구지부



경남모임 (055-266-0170)

- **결연가정 후원** : 월 생활비 지원, 말반찬 및 김장김치 나누기 / 매월 둘째, 넷째 목요일 오후 4시 / 명절 및 가정의 달 세대 방문 성금 및 생필품 전달
- **장학금 후원** : 결연세대 청소년 장학금 지원
- **외부 시설 봉사활동**
 -보현행원 : 무료노인요양원으로 매월 셋째 수요일 말벗 및 빨래 노력봉사 / 오전 9시 30분 사무국 출발
 -사파복지회관 : 무료급식소(자비 공양의 집), 매월 넷째 주 화요일과 매주 토요일에 점심준비 및 설거지, 배식 봉사/오전 10시~오후 2시
 -해 뜨는 교실 : 봉림 청소년 문화의 집, 저소득층 공부방으로 매월 첫째 목요일 오후 5시 학습지도 및 간식 지원 / 초등·중등 40명 지원
- **천연화장품 만들기 모임** : 매월 첫째, 둘째 금요일 진행 / 오후 1시 30분 / 사무국
- **친환경 수세미 나누기** : 매월 둘째 화요일 모임 및 친환경 수세미 판매
- **위안부 할머니 자원활동** : 지역 내 홀로 생활하시는 위안부 할머니 찾아뵙기 및 자원활동
- **선 수련 모임** :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 열린법당 '마하연'
- **회원 만남의 날** : 매월 넷째 수요일 오전 11시 / 사무국
- **정기 후원자 및 자원 활동가 수시 모집**

후원 : 농협 932-01-002933
(사)맑고 향기롭게 경남지부

광주모임 (062-236-3129)

- **점심공양나눔** :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고령, 저소득, 독거어르신을 대상으로 천원의 밥상(점심) 운영 / 오전 9시 30분~오후 2시 / 봉사자 및 후원자 모집(김치 담그기 / 매주 토요일 공양 나눔 센터)
- **자비의 도시락 나눔 활동** :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세대를 위한 도시락 나눔
- **광주모임에서는 동구 산수동에 지역 회원들의 친목과 불자들의 소통, 나눔의 공간으로 맑고 향기로운 가게 '무소유' 찻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원님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 **독서모임** : 법정 스님의 저서를 매월 선정하여 읽고 회원들과 함께 교류 / 매월 둘째 수요일 / 사무국
- **노래모임** : 건전가요, 명곡 노래 교실
- **장학사업** : 가정환경이 어려운 고등학생을 선발하여 3년간 학비 전액 지원
- **장터 및 바자회 운영** : 회원 및 이웃 대상으로 생필품 교환, 기증 헌 옷 판매, 농산물 직거래, 친환경제품 판매
- **쓰레기 줍기 캠페인** : 연중 회원 및 봉사자들과 주변 환경 및 사찰주변 쓰레기 줍기 캠페인 전개
- **천연화장품 만들기** : 매주 월요일 오후 2시 / 천연세숫비누, 빨랫비누, 천연 화장품
- **정기 후원자 및 자원활동가 수시 모집**

후원 : 농협 355-0018-7812-13
(사)맑고 향기롭게 광주지부

기도명/법회	날짜	시간	장소
다라니 기도	6월 6일	오후 6시 ~ 8시 30분	극락전
백중 아미타기도 입재 및 하안거 결제	6월 6일	오전 9시 50분	극락전
삼천배 철야정진	6월 6일	오후 8시	극락전
지장재일	6월 9일	오전 9시 50분	지장전
관음재일	6월 15일	오전 9시 50분	극락전
초하루 기도	6월 21일	오전 9시 50분	극락전
극락전기도	매 일	새벽 4시/오전 9시 50분/오후 7시	극락전
지장전기도	매 일	새벽 4시 40분/오전 9시50분/오후 7시	지장전

일요가족법회, 청년회법회, 중·고등법회, 어린이법회, 새신도교육 일정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일정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하여 드리겠습니다.

천수다라니 33독 3년 기도

- 일시 : 6월 6일(토) 오후 6시 ~ 8시30분
- 장소 : 극락전
- 한 가지 소원의 성취를 일념으로 발원하고 신묘장구대다라니를 독송하면 관세음보살의 가피력으로 원하는 바가 속득성취되는 영험한 기도가 천수다라니 기도입니다.
- 개인 축원입니다.
- 공양물(떡, 꽃, 쌀 등) 설판 받습니다.
-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신도 참석이 불가할 경우, 인터넷 유튜브로 실시간 중계될 예정입니다.

백중 아미타기도 입재 및 하안거 결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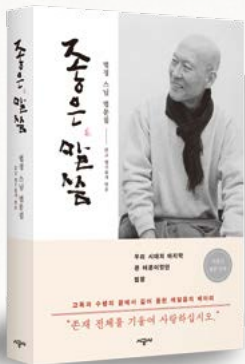
- 일시 : 6월 6일(토) 오전 9시 50분
- 장소 : 극락전
- 입재 : 6월 6일
- 초재 : 7월 22일 / 선망조상을 위한 천도재
- 2재 : 7월 29일 / 낙태영가를 위한 천도재
- 3재 : 8월 5일
- 4재 : 8월 12일
- 5재 : 8월 19일 / 반려동물을 위한 조축
- 6재 : 8월 26일
- 막재 : 9월 2일

- 공양물(떡, 꽃, 쌀 등) 설판 받습니다.
- 영가 지웃 접수 받습니다. 중무소에서 접수 후, 영단 옆 마련된 함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영가 지웃은 막재 때 소전 해드립니다.



맑고 향기롭게 법정 스님 법문 & 강연집 “좋은 말씀” 엮음

31편의 미출간 법문으로 엮은 깨달음의 메아리



(사)맑고 향기롭게는 법정 스님 입적 10주기를 맞아 스님께서 1994년부터 2008년까지 법회와 대중 강연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 주었던 올림 큰 메시지들을 담은 31편의 미출간 법문과 강연을 엮어 5월 8일 출간(출판사 시공사)하게 되었습니다. 1975년부터 송광사 뒷산 불일암과 강원도 오두막에서 은둔하며 홀로 수행하던 스님은 ‘생전에 밥값은 하고 가겠다’는 스스로의 뜻에 따라 보다 적극적으로 대중에게 다가서며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질문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은 청정한 존재로서 희구하는 올바른 길과 속인으로서 갖게 되는 욕구 사이에서 길을 잃고 맙니다. 구도자의 삶이란 이 술한 질문들에 가장 올바른 답을 구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중생이 끝없지만 기어이 건지리다.’라는 원을 세웠던 지장보살과 마찬가지로 법정 스님은 개인의 정진을 넘어 중생을 구할 생각과 행(行)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 끊임없이 수행하셨습니다. 이번에 출간되는 『좋은 말씀』은 혼탁하고 병든 세상에서 우리들이 인간으로서 어떻게 세상을 치유하고, 삶의 본질을 회복할 것인지 방향을 제시하는 ‘말 빛’이 될 것입니다.

만일 한 아이가 서럽게 울고 있는 것을 보고도 그냥 지나쳤다면 그 아이는 내 가슴속에서 계속 울음을 울게 됩니다. 내가 그 아이를 달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 둘레에 어려운 이웃이 있다면 내 삶 자체도 그만큼 위축됩니다. 나와 이웃은 한 뿌리이기 때문에, 이웃이 곧 나의 분신이기 때문입니다. _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_ 중에서

법정 스님 수행처 사진 공모전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는 법정 스님 입적 10주기 추모 문화사업으로 법정 스님의 대표적인 수행처의 아름다운 모습을 사진으로 공모하여, 선정된 작품 사진은 맑고 향기롭게&길상사 2021년도 달력과 월간 '맑고 향기롭게' 표지 등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 **공모주제** 법정 스님 출가 고향 마을(전라남도 해남 우수영), 경남 통영 미래사, 경남 하동 쌍계사, 경남 양산 통도사, 경남 합천 해인사, 서울 강남 봉은사, 전남 순천 송광사&불일암, 서울 삼각산 길상사에서의 스님과 불자들이 수행하는 모습, 지혜와 자비행을 실천하는 모습, 고즈넉한 산사의 아름다운 풍경, 사찰 전통 건축양식 및 자연경관상 등 주제에 적합한 작품사진
- **공모자격** 제한없음
- **접수기간** 2020년 8월 1일 ~ 8월 20일 까지
- **입상작 발표 및 시상식 차후 공지**
- **공모주제** (사)맑고향기롭게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시고, 참가신청서를 내려 받아 사진과 함께 이메일(clean94@hanmail.net)로 접수바랍니다.(1인 3작품 이내)
- **출품규격** 디지털 사진 /JPG 이미지파일로 최소 1,000만 화소 이상/크기는 3MB 이상 (필름 사진은 스캔 후 응모 가능)
- **입상작 발표 및 시상식 차후 공지**
- **주최** (사)맑고 향기롭게
- **시상 내용**

종류	인원	상금액
대상	1	상장 및 상금 200만원
최우수상	2	상장 및 상금 100만원
우수상	3	상장 및 상금 50만원
장려상	6	상장 및 상금 20만원
입선	20	상품권 5만원, 법정스님 사진첩

· 시상인원은 응모작품수 및 작품완성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www.clean94.or.kr / Tel. 02.741-4696